

# ‘짚뚱 개방’ 죽산보 유속 증가 효과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일 죽산보가 수문 상시개방(평소보다 1m 수위를 낮춤)에 들어갔지만, 유속 변화를 비롯한 영산강 환경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 개방 후 유속은 미미하게 빨라졌다가 다시 느러졌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유속이 무려 25분의 1 수준으로 느려졌다”는 자료를 내면서 “죽조 현상 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속을 빨리 하는(강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근본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죽조 확산…수문 개방도 수질예보 관심 발령=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수문 개방 후 유속을 저속으로 수질예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남조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죽산보에 내려졌던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수문 개방까지 확대된 것이다. 수문 개방 후 유속은 지난 12일 ㎥당 375개였던 것이 19일 41.4개, 26일 1만2080개로 치솟았다.

지난 22일부터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죽산보 구간의 남조류 개체수 역시 지난 12일 ㎥당 700개였던 것이 지난 19일

## 4대강 사업 전보다 유속 25분의 1 수준…죽조 차단 못해 수문개방까지 수질예보 관심 확대 발령…환경단체 대책 촉구

죽산보 개방 전후 유속 변화 보니

개방전 초속 0.030m→개방초(6월1~3일) 0.053m→이후 0.040m  
4대강 사업 전 5월 평균 유속 0.828m→이후 5년간 0.041m로 줄어

1만4020개, 26일에는 1만5920개로 치솟고 있다.

수질예보제는 공공수역 수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남조류 개체 수나 클로로필-a 농도에 따라 평상·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뉜다. 남조류 세포 수가 ㎥당 1만 개를 넘어서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관계없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는 남조류 개체수가 수질예보 발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조류 일부가 독소(간 독소, 신경독소)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영산강 죽조현상(남조류 대량 번식)으로 물빛이 녹색을 띠는 현상) 확산을 가법계 불사 안이 아니다.

환경부는 남조류 증식은 일사량, 수온, 영양염류(질소·인), 체류시간(유속)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영산강 수온은 수문개방 전인 지난 12일 23.5도, 19일 24.3도, 26일 25.5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온이 1도 상승하는 것은 물 밖 온도가 10도 상승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남조류 개체수 증대 등 수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후 유속 25분의 1 수준…수문개방도 소용없어=이날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4대강 수문개방 6개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영산강 죽산보 유속은 수문 개방 이전 초속 0.030m이던 것이 개방 초(6월1~3일) 0.053m로 미미하게 빨라졌다가 이후(4~18일)에는 0.040m로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대강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 유속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수문 상시 개방 후에도 유속 변화가 없는 것은 낙동강, 금강 등 수문 개방이 이뤄

진 다른 보 구간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를 보면, 죽산보의 4대강 사업 전 4년(2007~2011년)간 5월 평균 유속은 초속 0.828m이던 것이 이후 5년(2012~2017년) 5월 평균 유속은 초당 0.041m로 25분의 1 수준으로 느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들어선 이후 강물 흐름이 이전보다 평균 25배나 느려졌고 새정부 들어 시행된 수문 개방에도, 죽조 현상을 완화하고 강물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속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유속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보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의 수문 개방 만으로는 유속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선 관료들 손이 아닌 민간활동가들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뭄과 폭염으로 강물 유입량은 줄고 수온 상승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바다로 흘러가야 할 강물이 (보)에 막히면서 영산강 전반으로 죽조현상이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조치, 수위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등 선결과제를 마무리한 후 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강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필로폰 유통

광산경찰, 6명 구속·7명 입건

미수입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국을 무대로 투약자에게 필로폰을 팔아치운 일당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축구 선수도 포함됐다.

광주경찰청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모(30)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38)씨 등 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일당은 1g당 160만원가량을 받고 13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과 종이로 덮고 테이프를 붙인 뒤 에어컨 실외기 등에 보관했다. 인터넷 등에 판매 글을 올려 놓고 필로폰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연락

이 오면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놔두고 가져가도록 했다.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촌 통신단지함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서 구매자에게 찾아가려는 식이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다수의 휴대전화, 은행 계좌를 이용했고 구매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김씨는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필로폰 유통책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로폰 30g을 압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채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총책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으로 불집현 전직 프로축구선수는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려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총책을 비롯한 일당 추적과 투약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초등생 치어 중상 입힌 30대 운전자 2년만에 구속

피해자 가족 헌법소원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 취소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혔지만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처분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가족이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도연 판사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A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

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3시40분께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놀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을 치었다.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A군 가족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를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고 정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2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2400원 횡령’ 실직 버스기사, 해고 무효 소송 최종 패소



○…요금 2400원을 횡령해 일자리를 잃은 전직 버스 기사 이희진(53)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이씨는 2014년 1월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에게 받은 4만 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실령 2400원을 횡령했다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 징계가 적법하다며 횡령액이 승객 1인당 600원에 불과하지만 버스요금 횡령액은 기본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고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이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

## 담양서 예비군지휘관 차량이

입소 예비군 덮쳐 20명 부상

예비군 지휘관이 예비군 20명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31보병사단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48분께 담양군 창평면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지휘관 A(50·군무원)씨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훈련장에 입소하던 예비군을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차량에 깔리는 등 20명이 다쳤다. 이 중 5명은 머리 등을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15명은 찰과상 등을 입어 군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고 다시 부대에 복귀했다. 사고당한 예비군은 조선대 자연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로, 이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했다.

사고를 낸 예비군 지휘관 A씨는 군 헌병대 조사에서 “차량 운행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입소 중인 예비군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사단 관계자는 “군 헌병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도전! 청렴 골든벨’…공무원 청탁금지법 이해·관심 높여요



29일 광주 서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에 참가한 서구 공무원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 행동지침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현배기자 choi@

# 사고 좋은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